# 전쟁터로

글쓴이 : 김명근

<시놉시스>

## 1. 주제

아이의 순수함이 세계와 맞닿았을 때 생기는 왜곡.

## 2. 기획의도

아이들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자.

## 3. 인물

설: 8세. 아빠를 싫어한다. 엄마를 구해주고 싶어 한다.
아빠: 35세. 파병 후, 집으로 돌아온 군인. 아내를 때린다.
엄마: 32세. 주부. 남편을 증오한다.
친구1: 8세.
친구2: 9세.
친구들: 8~10세.

## 4. 줄거리

참전 후유증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맞는 어머니. 그 모습을 본 설은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 낼 계획을 실행한다.

#1. 방치된 놀이터. 아무렇게나 버려진 자재들.
비온 뒤 풍경. 군데군데 물웅덩이, 이슬 맺힌 거미줄, 잔뜩 녹슨 놀이기구들.
모래사장이지만 군데군데 잡초가 무성하다.
동네 꼬마들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고 있다.
(전환) - 1인칭, 잔뜩 화난 여자아이의 주먹이 얼굴로 날아온다.
친구2의 얼굴을 때리는 설.

#2. 집
(전환) 아빠, 엄마를 때린다.
설, 집에 들어오고,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보자마자
방안으로 도망치듯 달려가 문을 잠그고 책상 밑에 숨듯이 앉는다. 벌벌 떤다.
그러다가 책상에 놓인 일기장을 펼친다.
밖에서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소리가 여전히 들린다.
설, 일기장을 읽는다.
아빠가 전쟁에서 돌아왔던 날의 일기다.

그 때 밝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과거회상 시작>
엄마: 설아! 얼른 나와봐! 얼른!

카메라, 방문 쪽을 비춘다.
설, 방문을 열고 나간다.
설, 거실을 지나 대문을 향한다.
대문 앞에는 군복을 입은 아빠와 엄마가 서로 껴안고 있다.
엄마, 눈물을 흘린다.
설, 방으로 뛰어 들어와 닫혀 있는 일기장을 편다.
일기장은 텅 비어있다.
설, 일기를 쓴다.

*"아빠가 돌아왔다!"*

일기장, 페이지를 넘긴다.

*"엄마랑 아빠랑 공원에 갔다."*
*"아빠가 나 몰래 엄마한테 뽀뽀했다. 다 봤지롱!"*

등의 내용이 나온다.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점점 내용이 암울해 진다. (일기장이 넘어갈 때 마다 그 상황에 대한 목소리가 들린다. 방문 밖에서 들리듯)
페이지 넘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러다 멈춘다.
쓰다만 일기가 나온다.

*"오늘도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 엄마는-"*

설, 일기를 마저 쓰기 위해 연필을 들어 일기장에 가져다 댄다.
그러다 엄마, 방 밖에서 소리친다.

엄마: 씨발 새끼... 너 있던 데로 꺼져.
아빠: 뭐라고?
엄마: 너 있었던 곳으로 꺼지라고.
아빠: 미친년, 무슨 개소리야?
엄마: 씨발 네가 사람 쳐 죽이고 다니던 곳으로 꺼지라고!

욕설과 때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설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엄마는 아빠가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

그리고 일기장을 덮는다.
설, 불을 끈다.
불이 꺼지고 한참 동안 어둠만 가득하다.
그러다가 빛이 약하게 새어든다.
바깥에서 새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설, 일어난다.
설, 커튼을 연다. 빛이 쏟아진다.
설, 씻고 옷을 입는다. 앉은뱅이 책상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동전을 몇 개 챙긴다.
설, 거실로 나간다. 거실 식탁엔 엄마가 앉아있다.
엄마, 돌아 앉아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설: 놀다올게.
엄마: (무심하게) 어디 가는데.
설: 요 앞에.
엄마: 그래.

설, 신발을 신는다. 그 때 엄마가 설에게 달려와 와락 안는다.
엄마, 몰골이 말이 아니다.
엄마: 설아, 우리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
설: (뜸들이다) 어디로?
엄마: 음.. 잠깐 요 앞에?
설: 거기가 어딘데?
엄마: (살짝 풀린 동공, 약간의 격양)몰라. 외할머니네 갈까? 안 간지 오래 됐잖아.
설: (뜸들이다) 저번에도 외할머니네 갔다가 아빠한테 엄청 혼났잖아.
엄마: (부산떨며) 딴 데 가면 되지. 아무튼 어디든 가자.
설: (곰곰이 생각한 뒤) 아니야, 엄마. 내가 엄마 안 도망쳐도 되게 해줄게.
엄마:(당황하며)그게 무슨 말이야?
설: (짐짓 어른스럽게) 걱정 마 엄마. 다녀올게요.
엄마: 설아!

설, 바깥으로 나간다.
그리고 집 앞에서 긴 나뭇가지 하나를 줍는다.

#3. 공터
친구들, 설을 기다리고 있다.
친구1이 설의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묻는다.

친구1: 그건 왜 가져왔어?

설, 친구1에게 나뭇가지를 겨누며 총 쏘는 시늉을 한다.

설: 두두두두.
친구1: 어쭈?

친구1, 근처 나무 밑에서 나뭇가지를 줍는다.
그리고 설에게 나뭇가지를 겨누며 총 쏘는 시늉을 한다.
그러자 친구들 모두 나뭇가지를 주워와 서로를 겨누며 총질한다.
친구2, 그 상황이 탐탁지 않다는 듯 억지로 나뭇가지를 줍고 의욕 없이 총소리를 흉내 낸다.
그러다가 나뭇가지를 바닥에 내팽개친다.

친구2: 재미없어. 그만할래.

그러자 설, 친구2를 노려본다.
그러다 달려들어 들고있는 나뭇가지로 친구 2를 찌른다.
친구들, 다가와 말리다가 서로 부딪치면서 감정이 격해진다.
싸움이 번진다. (#1과 동일한 장면)
설, 싸움 도중 몰래 빠져 나온다.
터진 곳에서 흐르는 피를 아무렇게나 닦아내고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주변 공중전화로 간다.
아빠에게 전화한다.

아빠: 어 딸, 무슨 일이야.
설: 아빠! 얼른 여기로 와봐. 여기!
아빠: 어디, 무슨 일인데.
설: 여기 전쟁 났어! 집 옆에 있는 공터야. 얼른 와!
아빠: 뭐라고? 설아! 설아?

설, 전화를 끊고 순수한 웃음을 짓는다.

(*)